

# 근대기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 과정

권영린\*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ABSTRACT

근대 사회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다. 그 중 전등은 고층의 필요에 의해 빠르게 도입되면서 서울의 경관을 근대적으로 이행시켰다. 전등으로 인한 야간경관은 도시의 시공간적 변화를 모두 지니는 경관으로 근대 도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다.

한국에서 전등이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은 1887년 경복궁의 건청궁이었다. 하지만 고층이라는 특정 인물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면 중세적인 성격을 지닌 경관이라 할 수 있다. 궁궐에서만 사용되었던 전등이 민간인에게까지 전파된 데에는 전차 부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시 사람들에게 전차는 부국강병의 지표이자 개화된 사회의 상징이었다. 전차의 이용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행 시간은 22시까지 연장되었다. 이때 전차의 야간운행은 1900년 종로 보신각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계기가 된다. 종로 가로등은 민간이 볼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이다. 종로 야간경관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었으며 당시 백성의 상권을 위하여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이라 할 수 있다.

*Key Words:* 근대 경관, 건청궁, 전등, 종로, 가로등

## 1. 서론

이 연구는 근대기 서울의 야간경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개항을 시작으로 외부세계에 문호를 연 한국은 근대 사회로 빠르게 전환됐다. 정부와 개화파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를 근대로 이끌기 위해 서양으로부터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서구의 과학기술 중에서도 전기는 편리함과 실용성으로 가장 주목받았으며(이태진, 2010: 28-33), 그 중 '전등'은 불면증으로 인해 야간 업무에 익숙한 고층에게 꼭 필요한 문명의 이기였다. 그 때문에 전등은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7년 만에 빠르게 도입되었다. 전등 시설의 구축은 한국의 주체적인 근대화 사업 그 자체로도 유의미하지만,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전등이 설치되면서 서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맞이했다.

첫 번째 변화는 도시의 근대화와 더불어 전등 시설이 전통적 도시 야간경관을 근대적 야간경관으로 이행시켰다는 점이다. 전등이 도입되기 전의 야간경관에서는 인공 광원보다 자연 광원이 야간경관의 중요한 요소였다. 그 중에서도 달빛이 최고의 감상 대상임을 당시 한시와 산수화를 통해 알 수 있다(오지영,

2014: 52, 106). 반면 전등불이 만들어낸 불야성(不夜城)의 밤은 전통 도시의 밤과 확연히 구별된다.

둘째, 전등 시설의 등장은 도시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당시 도시민이 가지고 있던 시간관도 변화시켰다. 전등으로 밝혀진 도시 공간은 밤을 낮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밤을 급속도로 와해시켰기 때문이다. 전등이 발명되기 이전 밤은 보편적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시간이었다면, 전등 시설이 설치되면서 밤 시간 동안 도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처럼 야간경관은 '도시의 시공간적 변화'가 모두 나타나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야간경관이 전등 시설 때문에 밝아진 밤의 모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서울의 시공간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야경이라 부르는 도시 야간경관의 연원을 추적해보고, 언제, 어디에, 누구에 의해 야간경관이 조성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야간경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야간경관의 물리적 양상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근대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간경관이 가지는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며, 근대 도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II. 전등의 설치와 야간경관의 탄생

전기에 대한 양질의 정보는 개항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전등의 초기 도입은 고종의 업무 습관과 그가 밤에 겪은 병변들로 인해 가능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고종은 불면증 때문에 주로 밤에 업무를 보고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들었기에 전등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절실했다. 또한 고종은 밤에 일어났던 임오군란(壬午軍亂)이나 갑신정변(甲申政變)과 같은 병란 위협을 대비해 미리 피난할 방도를 마련해두는 과정에서 전등을 많이 켜 새벽까지 환하게 밝히기를 원했다(황현, 2005: 114). 이런 이유로 고종은 전등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림 1. 미국인 전기기사 맥케이(William McKay, 麥巨) 일행이 전등소 설치를 위해 주합루 옆 영화당 연못가를 답사하는 사진  
자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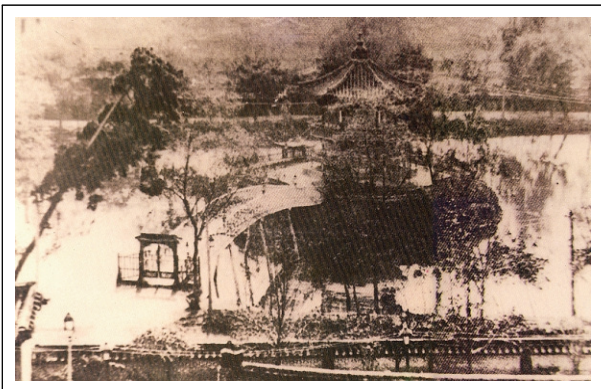


그림 2. 건청궁에 전등이 설치된 모습  
자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14), p.80.

국내에 처음 전등이 설치된 곳은 경복궁 후원의 건청궁(乾淸宮)이다. 1887년 3월 6일 건청궁에 설치된 전등 설비는 16축 광 750개 규모로 에디슨사에서 제작한 7kW의 발전기 3대와 엔진, 보일러를 갖춘 발전소가 향원정의 취향교와 우물 사이의 중간 연못가에 설치되었다(한국전력공사, 1989a: 77-78). 이때 설치된 전등 설비는 당시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설비로 평가되었다(한국전력공사, 1989b: 1).

전등이 설치된 후 궁 내부의 상황에 대한 기록으로 궁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안상궁과 경전감리과장(京電監理課長) 안겸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다. “궁내의 큰 마루와 뜰에 등롱 같은 것이 설치되어 서양인에 의하여 기계가 움직이자 등롱에는 백주보다 더 밝은 휘황한 불빛이 들어왔다. 밖의 궁궐에 있는 궁인들이 이 전등을 구경하기 위하여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는 내전 안으로 몰려들었다”(한국전력공사, 1989a: 83)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보아 낮보다 밝은 밤은 당시에 굉장한 구경거리이자 생경한 경관이었을 것이다. 야간경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향원지 증어(烝魚)사건<sup>1)</sup>을 계기로 전등은 나라에 불길한 불이라는 여론이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둠의 삶에 익숙하던 사람들에게 밤의 족쇄를 풀어버린 전등 불빛은 어떤 근대 문물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계심은 오래가지 않았다(노형석, 2004: 43-44).

## III. 거리로 나온 야간경관

궁궐에서만 사용되었던 전등이 민간인에게까지 확산된 것은 1900년이 되어서였다. 이때 야간경관의 진정한 근대화가 실현된 데에는 전차(電車) 부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종은 전등만큼이나 전차에도 큰 관심을 두었다. 광무개혁(光武改革)으로 자신의 권한이 강화된 지 한 해만인 1898년에 서울에서 전기사업을 주도하고 경영할 한성전기회사를 세워 전차 부설을 추진하게 했고, 1899년에 전차 부설을 완공시켰다(최인영, 2015: 43).

한 기사에서는 조선이 강하고 외국에 대접을 받으려면 나라에 철도를 거미줄같이 늘어놓아야 하며 철도들이 개미 같이 왕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獨立新聞, 1896. 10. 10.),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 전차가 부국강병을 위해 개화된

1) 발전소가 세워진 향원지의 물고기가 죽어 물 위로 떠오른 사건으로, 발전소에서 흘러보낸 뜨거운 물이 그대로 향원지로 들어가 물고기가 떠 오른 것이다. 전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궁인들은 오랑캐의 불을 궁궐에서 켜 일에 대한 신의 분노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 믿었다(서울특별시, 2014: 81-82).

사회를 구성하는 한 예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연희(1997: 96) 또한 전차에 대한 인식으로 서구 사회의 기술과 이기들이 가지는 위력, 문명, 개화된 사회가 가진 편리성, 그리고 그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차가 가지는 의미는 전차 노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차 노선은 전통적으로 상인들이 상품의 이동을 위해 이용했던 운송로이며, 특히 남대문, 종로, 동대문의 도성 내 3대 장터가 위치한 곳이었다. 고종은 전차를 통해 장터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외세에 침식당하는 한국 경제를 지원하고 식산흥업의 기반을 확보하고 일본 상권에 잠식당하고 있던 국내 상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14: 119-125). 이는 전차의 상징성이 침체한 전통 상업시설을 회복할 만큼 위력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차 개통 이후 전차 선로가 점점 확장됨에 따라 승객이 점차 늘어났으며 전차 영업 수입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성전기회사는 배차 간격을 12분으로 좁혔다. 또한 본래 전차는 8시부터 18시까지 운행되었는데, 1900년 4월부터는 22시까지 운행 시간을 확장하게 된다.<sup>2)</sup> 전차의 야간 운행이 시행되면서 종로 보신각에 위치한 정거장과 매표소 주변을 조명하는 가로등 3기가 설치되는데(皇城新聞, 1900. 4. 11), 이것이 도시 가로에 설치된 최초의 전기 가로등이며 민간이 볼 수 있었던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이다.

종로는 광화문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서울의 동서를 횡단하는 도성 내 중요 간선 도로였으며, 조선시대부터 많은 상점이 분포했던 서울의 가장 변화한 상업가도다. 전차가 쇠퇴하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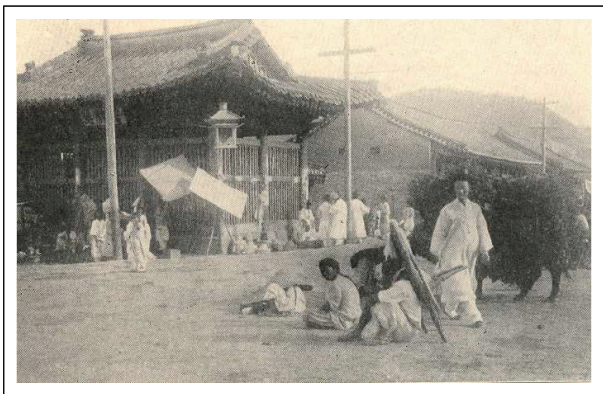


그림 3. 종로 보신각에 설치된 가로등의 모습

자료 : Holmes, B.(2012), p.78.

2) 서울에는 오랜 기간 '야간 통행금지제도'가 존재했다. 보신각의 종소리에 맞추어 사대문이 개폐되었으며, 성문이 닫히면 순라군(巡邏軍)이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거리를 돌며 순찰했다. 민간이 자유롭게 밤을 이동하게 된 것은 약 500여 년을 이어온 야간 통행금지제도가 1895년 폐지되면서부터다(서울특별시, 2014: 78).

의 발전을 위해 남대문, 종로, 동대문의 큰 장터들을 연결하였다면, 종로에 위치한 전차 정거장에 설치된 가로등은 전차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족 상권의 중심지인 종로에 야간경관을 형성한 것은 전통적으로 종로가 지닌 장소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IV. 결론

개항을 통해 근대화가 진행된 한국은 빠른 속도로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 중 전등은 괄목할 만한 속도로 도입되었고 1887년 건청궁의 밤을 밝혔다. 전등을 광원으로 하는 야간경관은 월광과 같은 자연물이 광원이 되는 전통적인 야간경관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차원에서 근대적이고 진보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때의 야간경관은 궁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특정 계층만 감상할 수 있었으며, 경관이 고종이라는 특정 인물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면 중세적 성격을 지닌 경관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00년 종로 보신각에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민간이 감상할 수 있는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이 조성된다. 서울 거리에 처음 전등이 켜진 것은 궁궐보다 10년도 더 늦은 일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었으며 당시 외세 상권에 잠식당하는 백성의 이익을 위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근대적 야간경관은 종로의 거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연희(1997) 大韓帝國期の 전기 사업 : 1897-1905년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19(2): 87-121.
2. 노형석(2004) 한국 근대사의 풍경 모던 조선을 거닐다, 우리가 아직 몰랐던 세계의 교양 5, 서울: 생각의 나무.
3. 독립신문(獨立新聞) 1896년 10월 10일.
4. 서울시사편찬위원회(2014) 서울2천년사, 25. 근대 문물의 도입과 일상 문화,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5. 오지영(2004) 서울 야간경관의 형성과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이태진(2010) 국립고궁박물관 위음, 대한제국 : 잊혀진 100년 전의 황제국, 서울: 고궁박물관.
7. 최인영(2015) 서울지역 옛 전차노선도를 활용한 도시교통의 변화, 서울고지도연구7(2): 44-57.
8.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db.history.go.kr/
9. 한국전력공사(1989a) 한국전기백년사, 서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전력공사(1989b) 한국전력사 연표, 서울: 한국전력공사.
11. 황성신문(皇城新聞) 1900년 4월 11일.
12. 황현(2005) 정동호 읍김, 매천야록, 서울: 꿈이 있는 집.
13. Holmes, B.(2012) 이진석 읍김, 1901년 서울을 걷다, 서울: 푸른길.